

에이즈와 치매

글_ 이 병 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정신과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기억, 사고, 지남력¹⁾,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가지 대뇌의 기능의 장애가 만성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오는 병을 말한다. 대체로 의식이 혼미하지는 않으며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병이다.

(지남력의 상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란이 오는 것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는 것을 말한다.)

A
I
D
S

DEMENTIA
COMPLEX

HIV 감염에 의해 생기는 치매를 에이즈치매복합체(AIDS Dementia Complex)라고 부른다. 에이즈치매복합체에서도 역시 여러 기능의 장애를 보이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해력이나 기억하는 능력이 손상된다. 이런 인지기능의 손상은 에이즈치매복합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매일 하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은데 초기 에이즈 치매 복합체의 30~40%에서 이런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운동이나 근육의 협응력이 떨어지고 방광조절이나 배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육이나 운동의 문제는 대개 초기에는 글씨쓰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초기에는 흔하지는 않다고 한다. 다음은 감정조절에 장애가 발생하여 우울, 조증,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에이즈치료제가 에이즈치매 발생 낮춰

에이즈가 진행되고 CD4+ 세포 수가 감소하면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초기 에이즈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빈도는 치료약물인 AZT가 등장한 이후 약물사용 이전의 57%에서 3%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즉 적극적인 에이즈의 치

에이즈가 진행되고 CD4+ 세포 수가 감소하면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초기 에이즈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빈도는 치료약물인 AZT가 등장한 이후 약물사용 이전의 57%에서 3%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즉 적극적인 에이즈의 치료가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료가 에이즈치매복합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에이즈치매복합체는 왜 생길까? HIV가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HIV가 어떻게 에이즈치매복합체를 일으키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라도 HIV가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져 온다는 가설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대식세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종류의 치매와 마찬가지로 에이즈치매복합체도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기가 힘들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에 에이즈 치매 복합체의 초기, 중기, 말기 증상을 나열해 보겠다. 물론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에이즈의 진행 막으면 치매 진행도 막을 수 있어

에이즈치매복합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정신상태 검사, 뇌자기공명촬영 등 영상학적 방법, 뇌척수액검사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정신상태검사가 중요한데 환자의 인지 능력, 사고, 기분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영상학적 방법이나 뇌척수액검사 등을 통하여 에이즈 환자에서 유사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에이즈치매복합체의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에이즈치매복합체의 주원인인 에이즈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에이즈치매복합체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정신과 적 약물을 사용하여 치매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주위의 지지체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에이즈치매복합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한 공포감이나 절망감은 금물이다. 조기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에이즈의 진행을 막는다면 에이즈치매복합체의 진행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표1_ 에이즈 치매복합체의 증상

		인지
<p>집중하기가 어렵다. 전화번호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 복잡한 일을 하려면 과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짜증이 많이 난다. 균형 잡기가 힘들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 생각이 느려진다. 글씨체의 변화가 있고 손 근육의 협응력이 떨어진다. / 우울하다.</p>	<p>근육이 약해지는 등 운동에 장애가 있다. / 일상적인 일도 하기 힘들다. 반응이 느려지고 물건을 쉽게 떨어뜨리기도 한다.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데 힘이 더 든다.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감동이 없다. 식사나 글씨쓰기 등 일상 활동이 느려진다. / 걷기, 균형 잡기에 힘이 든다.</p>	<p>대소변의 조절이 안 된다. 걸음걸이가 경직되거나 걷기가 힘들다. 일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이 완전히 없다. 생활에서 완전히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못한다. 정신증상 혹은 조증 상태. 침대에만 누워있다.</p>